

3. 다음은 대표자 선출 방식에 대한 주장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은 판결을 내리고 공직을 맡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 각 시민이 정치적 평등, 즉 공직에 선출될 기회를 동등하게 가지기 위해 ()을/를 통해 일부 공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직 담당자를 선정하였다.
- 선거에서 선출된 정치적 대표자들은 특정 범주의 사람들이 과대 대표되거나 과소 대표되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 입법부를 최대한 정치공동체 전체의 축소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 대표자들은 ()을/를 통해 선정되어야 한다.
- ()을/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 중의 일부는 자신들의 결정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거나 규범적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다음은 한국 불교 사상가의 글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 더러움과 깨끗함의 모든 법은 그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됨과 거짓됨의 두 문(門)은 다름이 없으므로 하나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 둘이 아닌 곳에서 모든 법은 가장 진실되어 허공과 같지 않으며, 그 성품은 스스로 신령스레 알아차리므로 마음이라 이름한다. 이 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있으며, 하나도 있지 않거늘 무엇을 두고 마음이라 하겠는가? 이 도리는 언설(言說)을 떠나고 사려를 끊었으므로 무엇이든 지목할지 몰라 억지로 ()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이른바 심성이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지만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망념(妄念)에 의하여 차별이 있으니, 만약 망념을 없애면 일체의 경계상(境界相)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법은 본래부터 소리 내어 말할 수 없으며, 문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마음을 일으켜 이름할 수도 없다. 결국 평등하게 되고,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도 없으며 파괴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오직 () (이)인 것이니 그러므로 진여(眞如)라 이름하는 것이다.

5. 다음은 서양 근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 도덕 법칙과 그 원칙들은 경험적인 것이 들어 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도덕 철학은 완전히 순수한 부분에만 근거를 두며,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 선험적으로만 법칙을 준다. ... (중략) ... 인간 그 자체는 갖가지 ()에 영향을 받아서 — 그 법칙을 실행하는 것이 순수한 실천적 이성이라는 이념으로서의 인간에게는 가능하다 해도 — 그 법칙을 자신의 생활 태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 참된 도덕적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길은 타인에 대한 지독한 무관심을 떨쳐 버리고 아무런 () 없이, 단지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행위를 하는 것이다. ... (중략) ... 그러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도덕적 가치는 바로 여기에서, 즉 ()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의무이기 때문에' 자선을 베푼다는 사실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6. 다음은 서양 중세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최고선은 신이다. 신은 변함없는 선이며 영원하고 불멸하는 선이다. 선한 신이 창조한 세계는 선하다. 따라서 악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선이 결여된 상태이다. 선은 악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고 또 존재하지만, 악은 선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 (중략) ... 용기, 지혜, 절제, 정의와 같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덕은 최고의 덕인 신에 대한 () (이)라는 덕의 다른 측면에 불과하다. 인간은 신에 대한 ()을/를 통해 신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행복에 이르게 된다.

7. 다음의 대화를 읽고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새로 전학 온 것을 환영해. 평양에서 왔다면?	응. 친하게 지내자. 이번 시간은 무슨 시간이지?
도덕 시간이야. 북한에도 도덕 과목이 있니?	응. '사회주의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어.
우리는 자율적인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중시하는데, 북한은 어때?	글쎄? 자율보다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 원칙'을 강조해.

8. 다음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교사: 오늘 수업의 주제는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입니다. 이 시간에는 남북한이 지금까지 갈등과 긴장 속에서도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대화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우선 남북 간에 공동으로 이루어진 합의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죠. 다 같이 표를 볼까요?

연도	명 칭
1972	7·4남북공동성명
199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199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2000	6·15남북공동선언
2007	남북관계 발전과 ()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학생: 남북 간에 가장 먼저 합의한 내용이 궁금해요.
 교사: 분단 이후 남북 간 최초의 공식 합의문서는 '7·4남북공동성명'이에요. 여기서는 자주, (),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발표했어요. 즉 통일은 외세 의존이나 간섭이 없이 해야 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무력 행사를 하지 않으며,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 2007년 '10·4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교사: 2000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07년에 두 번째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여기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한반도 ()체제 구축, 남북 경협 확대·발전 등 다양한 분야별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어요.

9. 다음은 수업 모형에 대한 도덕 교사들 간의 대화이다. ()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고,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4점]

갑: 이 수업 모형은 원래 개인이 무엇을 소중히 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돕고자 만들어졌죠. 이 수업 모형에 따르면, 학생들은 어떤 외부적인 가치를 주입받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 존중, 행위라는 3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을: 하지만 이 모형은 (㉡) (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죠.

갑: 네, 맞아요. 그래서 커션바움(H. Kirschenbaum)은 그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이 모형의 3가지 과정을 사고, 느낌, (㉠), 소통, 행위의 5가지 과정으로 확장했어요.

10. 다음은 근대 사회 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의 ㉠과 ㉡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질문에 대한 이 사상가의 대답을 서술하시오. [4점]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오직 그 자신의 동의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를 이 땅 위의 권력에 복종시킬 수 없다. 어떤 사람을 정부의 법률에 복종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동의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와/과 (㉡)(이)라는 구분이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회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한다면, 그것으로써 그 사람은 그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며 정부의 신민이 되어 법률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남아 있는 문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 가입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았는데도, (㉡)을/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11. 다음은 서양 현대 윤리학자와의 가상 토론이다. () 안의 ㉠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을 활용하여 밑줄 친 ㉡에 대한 윤리학자의 답변을 서술하시오. [4점]

사 회 자: 동물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리학자: 그들도 (㉠)을/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평가에 의해 부여받는 것도 아니고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 가지는 특별한 가치입니다. 어떤 개체가 믿음과 욕망을 갖는다면, 지각과 기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식을 갖는다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감정적 삶을 산다면, 선호 및 복지와 관련해 이익을 갖는다면, 자신의 욕구와 목적 달성을 위해 행동할 능력이 있다면, 심리적인 동일성을 갖는다면, 자신이 경험하는 삶이 다른 존재의 유용성 및 이익과는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잘 살거나 못 산다는 의미에서 개별적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입니다.

사 회 자: ㉡ 삶의 주체인 개체를 우리는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윤리학자: _____.

12. 다음 갑과 을은 중국 유학 사상가들의 주장이다. () 안의 ㉠과 ㉡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의 선후(先後) 관계에 대한 갑의 주장을 서술하시오. [4점]

갑: 성(性)을 논하고 기(氣)를 논하지 않으면 완비된 것이 아니고, 기를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않으면 밝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대개 (㉠)은/는 다만 지극한 선(善)일 뿐이어서 기질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어두움과 밝음, 통함과 막힘, 단단함과 부드러움, 강함과 약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완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단지 (㉡)만을 논하고 그것을 본원의 측면에서부터 말하지 않으면, 비록 어두움과 밝음, 통함과 막힘, 단단함과 부드러움, 강함과 약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겠지만, 지극히 선한 근원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밝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을: 지(知)는 행(行)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지만 말해도 이미 행이 거기에 들어 있고, 행만 말해도 이미 거기에 지가 담겨 있다. ... (중략) ... 성인의 학문은 하나의 공부일 뿐이니 ㉢ 지와 행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없다.

13. 다음은 서양 근대 윤리 사상가의 글이다. () 안의 ㉠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4점]

○ 쾌락 이상으로 더 좋은 욕망과 고상하게 추구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야비하고 천박한 이론이라고 말하는 이들에 대해, ... (중략) ... 그 옛날 (㉠)학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반격을 가했다. 즉, 인간이 돼지가 즐길 수 있는 쾌락 이상의 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처럼 상정하는 그들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다.

○ 만일 두 가지 쾌락이 있을 경우,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삶의 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들 가운데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 (중략) ... 그러니 결국 만족해하는 바보보다 불만족해하는 소크라테스가 더 나은 것이다. 만일 바보나 돼지가 이런 나의 주장에 대해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 때문이다.

14. 다음은 중국 고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이 용어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4점]

○ 사물은 ‘저것’ 아닌 것도 없고, ‘이것’ 아닌 것도 없다. ‘저것’ 으로부터 보면 ‘이것’을 알 수 없지만, ‘이것’에서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온 것이요, ‘이것’은 ‘저것’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저것’과 ‘이것’은 상호 의존적이다.

○ ‘이것’은 곧 ‘저것’이고, ‘저것’은 곧 ‘이것’이다. ‘저것’이라고 하는 데도 하나의 시비(是非)가 있고, ‘이것’이라고 하는 데도 하나의 시비가 있으니, 과연 ‘저것’과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저것’과 ‘이것’이 그 짝을 이루지[得] 않은 것을 () (이)라고 한다. ... (중략) ... 그러므로 “밝은 지혜로써 통찰함만 같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